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4(1)(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기호를 활용하거나, '절정 위', '비켜서 있다'와 대응하는 시어를 묻는 등 작품에 제시된 시어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해당 작품에 제시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
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
(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
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
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 ㉠~㉫ 중, 화자가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 다음 중 ㉠, ㉡에 대응되는 시어가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는 일
②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분노하는 일
③	스펀지 만들기과 거즈 접고 있는 일	모래를 보고 자조하는 일
④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을 증오하는 일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⑤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 분노하는 일	동회 직원에게 분노하는 일

3. ㉠~㉡ 중 성격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과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4. ㉠~㉣ 중 '절정'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신유형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작품에 반영된 시대 현실에 대해 묻거나, 문학 감상의 관점에 대해 묻는 문제, 학습 활동에 제시된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의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함께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표현상의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학습 활동을 꼼꼼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밑글의 시어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구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①	왕궁의 음탕, 언론의 자유 요구, 구청 직원에 대한 반항	스펀지 만들기, 야경꾼과 이발쟁이에 대한 분개
②	월남 파병 반대, 구청 직원과 야경꾼에 대한 분개	거즈 접고 있는 일, 동회 직원과 이발쟁이에 대한 반항
③	불잡혀간 소설가와 야경꾼에 대한 분개	왕궁의 음탕, 설령탕집 주인에 대한 분개
④	스펀지 만들기, 땅 주인과 구청 직원에 대한 분개	불잡혀 간 소설가와 설령탕집 주인에 대한 분개
⑤	왕궁의 음탕, 땅 주인과 동회 직원에 대한 분개	언론의 자유 요구, 거즈 접고 있는 일, 설령탕집 주인에 대한 분개

【6~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
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
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
(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
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
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

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6.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 ②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스스로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추상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반성의 지속성을 드러낸다.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 ③ 일상어,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반성한다.

- ④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한다.
- ⑤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상황이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부각되어 있다.

8. 윗글의 시어 및 구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웅졸', '비겁'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 ② '왕궁'은 거대한 권력을, '왕궁의 음탕'은 그러한 권력의 부조리함을 의미한다.
- ③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은 화자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 ④ '우습지 않느냐'에서는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인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속된 모습, 속물성을 표현하고 있다.

9.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였다.
- ② 비슷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였다.
- ③ 규칙적인 음수율과 음보율을 지켜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시어를 아름답게 갈고 닦아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화자의 질문과 청자의 대답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10.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사에 두려워하며 조심한다.
- ② 자신을 성찰하며 스스로 위로한다.
- ③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다 붙잡혀 갔다.
- ④ 포로수용소에서 정보원 노릇을 했다.
- ⑤ 엄격한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세우려 했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으로 미루어 윗글을 감상하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부끄러운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가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미비한 자연물에 대비하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조적인 표현은 독자들에게 화자를 책망하기에 앞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 ① 표현론적 관점
- ② 반영론적 관점
- ③ 효용론적 관점
- ④ 절대주의적 관점
- ⑤ 심미주의적 관점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지금도 나는 김수영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고르라면 서슴없이 이 한편을 댈다. 이 시는 그의 시 가운데 언어경제와 압축에 의한 절제가 결여된, 어찌 보면 장황하고 군소리가 많은 시에 속한다. 다른 여타 시를 보았을 때, 이러한 방법의 시의 경우 메시지가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데, 그렇다면 강한 메시지의 유혹을 느낄 때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극도의 언어경제와 압축을 가지고는 메시지의 충분한 전달이 불가능하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이 시는 도덕적 순결성을 지향하는 소시민의 갈등과 고통의 청교도적 표백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러한 번민은 그만의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시는 세상을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지 세상살이로부터 초연하거나 뛰어난,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이 시의 감동의 원천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갈등과 고뇌를 대변했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시에 내재하는 리듬도 시를 빛내주는 요인의 하나로서, 낮은 통과 느린 리듬으로 시작해서 클라이맥스에서 높은 통과 급박한 리듬으로 끝나는 방법은 이 시가 얼마나 면밀하게 계산된 시법 아래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준다.

- ① 유사한 시적 상황과 유사한 시구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 시를 통해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뜻이겠군.
- ② 6연은 '때문에', 7연은 '작으냐'라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시적 분위기를 급박하게 고조시키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군.
- ③ '모래, 바람, 먼지, 풀' 등 일상의 소소한 존재들을 호명하며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세상에 초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웅졸하고 비겁했던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며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고뇌를 드러냈기에 이 시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군.
- 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유를 이행'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그에 대해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지향을 알 수 있겠군.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
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
(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
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
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
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
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
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3.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설적으로 시적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며
시상을 도입하고 있다.
- ② ㉡: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
기반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과장을 통해 스스로의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행갈이를 낮설게 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삶의 자세를 변화하고
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14. 윗글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중심 소재와 주제 를 표로 정리하였다. 다음 표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절정'에 있음.	대조	'비켜서' 있음.
㉠분개해야 할 대상 : 왕궁, 구청 직 원	↔	㉡분개하고 있는 대상 : 야경꾼, 땅 주 인
㉢본질적인 것 : 언론의 자유 요 구, 월남 파병에 대한 반대	↔	㉣비본질적인 것 :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
주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자부심		

- ① ㉠에 해당하는 시어로 '동회 직원'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에 있는 '땅 주인'을 ㉠로 옮기고 그 대신 '이
발쟁이'와 '설령탕집 주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
절하다.
- ③ ㉢에는 '왕궁의 음탕에 대한 비판'이 추가될 수
있다.
- ④ ㉣의 '스펀지 만들기'는 화자에게 가치 중립적

행위로 인식되므로 ㉔와 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㉔는 '부당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윗글의 ㉔~㉕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㉔
② ㉕
③ ㉔
④ ㉕
⑤ ㉔

16. 윗글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경험을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사실적으로 전개하고 있군.
③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④ 대조적 상황 제시를 통해 화자의 자족적인 심리 상태를 표출하고 있군.
⑤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군.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일화들을 나열하면서 서술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거나 변형시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대비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절정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㉔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른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㉕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㉔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㉕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㉔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㉔는 힘없는 자를 의미하며, 화자가 현재 분개하고 있는 대상이다.

①, ②, ④, ⑤ ㉔, ㉕, ㉖, ㉗는 모두 화자가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이다.

2. 정답 ②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삶을 의미하므로 ㉔에 대응하고, 설령 탕집 주인에게 분노하는 것은 힘없는 자에 대한 분개를 의미하므로 ㉔에 대응한다.

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과 왕궁의 음탕에 분개하는 일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므로 ㉔에 대응한다.

③ 스펀지 만들기과 거즈 접고 있는 일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으로, 소시민적 태도를 드러내므로 ㉔에 대응하고, 모래를 보고 자조하는 일은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반성을 드러낼 뿐, ㉔에 대응되지 않는다.

④ 야경꾼을 증오하는 일은 힘없는 자에 대한 분개이므로 ㉔에 대응하고, 지금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의미하므로 ㉔에 대응한다.

⑤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 분노하는 일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므로 ㉔에 대응하고, 동회 직원에게 분노하는 일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반항을 의미하므로 ㉔에 대응한다.

3. 정답 ②

㉔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①, ③, ④, ⑤ ㉔, ㉕, ㉖, ㉗ 힘없는 자에 대해서만 분개하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만 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4. 정답 ②

'절정'은 불의에 맞서는 삶을 의미하고, ㉔은 불합리

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①, ③, ④, 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삶을 드러낸다.

5. 정답 ①

왕궁의 음탕, 언론의 자유 요구 등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구청 직원과 같은 힘 있는 자에 대한 반항은 본질적인 것이고, 야경꾼, 이발쟁이처럼 힘없는 자에 대한 분개와 스펀지 만드는 일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② 야경꾼은 힘없는 자이므로, 야경꾼에 대한 분개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동회 직원은 힘 있는 자이므로, 본질적인 것이다.

③ 야경꾼은 힘없는 자이므로, 야경꾼에 대한 분개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왕궁의 음탕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인 것이다.

④ 스펀지 만들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불잡혀 간 소설가에 대한 분개는 본질적인 것이다.

⑤ 언론의 자유 요구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므로 본질적인 것이다.

6. 정답 ④

마지막 연에서 '모래, 바람, 먼지, 풀' 등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자조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추상적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①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윗글은 고백적 어조를 활용해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해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윗글은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속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7. 정답 ⑤

윗글에는 1960년대 부정한 권력과 부조리가 만연한 사회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상황이 다양한 심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①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소시

민적 삶에 대한 반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일상어를 사용하고, '돼지 같은 주인 년'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정말 얼마큼 작으나……'처럼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8. [정답] ③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은 힘 있는 자로 화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① '옹졸', '비겁'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옹졸하고 소시민적인 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왕궁'은 거대한 권력을 의미하며, '왕궁의 음탕'은 권력자들의 부도덕성, 탐욕스러움을 드러내며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④ '우습지 않느냐'에서는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에는 분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⑤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속된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②

'얼마큼 작으나' 등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보잘것 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자기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① 윗글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윗글은 규칙적인 음수율과 음보율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윗글은 일상어,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윗글은 '얼마큼 작으나'처럼 의문문의 형식으로 반성과 자조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화자의 질문과 청자의 대답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10. [정답] ①

화자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처럼 느끼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매사에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나약한 인물로, 불합리한 상황이나 힘 있는 자에게는 분개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분개하는 소시민적인 인물이다.

② 윗글의 화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소시민적 태도에 대해 반성, 자조하고 있을 뿐,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다.

③, ④, 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③

독자가 얻은 교훈이나 심미적 쾌락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효용론적 관점이다.

①, ②, ④, 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없다.

12. [정답] ③

'모래, 바람, 먼지, 풀' 등 소소한 존재와의 대비를 통해 '나'의 왜소함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초연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은 '때문에'와 '작으나'의 반복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반성과 자조 의식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윗글의 화자는 옹졸하고 비겁했던 자신의 일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고뇌를 드러내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에 깊은 공감을 얻게 된다.

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자유를 이행'하는 일은 사회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판 비판으로, 모두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화자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부끄

러워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도덕적 순결성에 대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13. [정답]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삶의 자세를 변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① ㉡: 자신의 옹졸함에 대한 고뇌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시상을 열고 있다.

② ㉢: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속된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은행나무 잎도 가시밭처럼 느낀다는 과장법을 활용해 사소한 일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기는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 '절정 위에는 서 있지 / 앓고'처럼 행갈이를 낫설게 하여,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14. [정답] ④

'스펀지 만들기'는 비본질적인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① '동회 직원'은 힘 있는 자로 ㉠에 해당한다.

② '땅 주인'은 힘 있는 자이므로 ㉠로 옮겨야 하고, '이발쟁이, 설렁탕집 주인'은 모두 힘없는 자이므로 ㉡에 추가해야 한다.

③ '왕궁의 음탕에 대한 비판'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으로 수정해야 한다.

15. [정답] ③

㉢는 힘없는 자로, 화자가 분개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①, ② ㉠와 ㉡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화자가 분개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④, ⑤ 힘 있는 자로 화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16. [정답] ①

윗글은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 주는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

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윗글은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등에서, 모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자조적 자기반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특정 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③ 윗글은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④ 윗글은 대조적 상황과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스스로에 대한 화자의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등에서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으나,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 상태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17. [정답] ⑤

윗글의 화자는 '절정'에 서 있지 못한 자신에 대해 반성과 자조 의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절정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윗글은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 주는 일상의 경험과 일화를 나열하여 실제적 삶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윗글은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속된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③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처럼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부당한 현실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8. [정답] ②

㉡: '포로 경찰'은 정보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일 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① ㉠: 권력자들의 부도덕성, 탐욕스러움을 의미하는 시어로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이다.

③ ㉢: 개의 울음소리조차 이길 수 없는 화자의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④ ㉤: 사소한 일임에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드러난다.

⑤ ㉥: 불의에 맞서는 삶을 의미한다.